

禪 중흥 발원, '명상마을' 곳곳에 담다

4월 20일 문경 세계명상마을이 개원했다. 2007년 봉암사와 문경시가 국제선센터 건립 협약을 맺고 시유지 34만 평을 봉암사가 매입한 지 15년만에 이뤄낸 쾌거다. 세계명상마을은 문을 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불사 재원 문제로 2014년 문경시가 국제선센터 미건립시 시유지를 환수하겠다는 소송 제기를 통보했고, 2015년 전국선원수좌회 차원에서 국제간화선센터 건립 추진을 분담키로 하며 나섰다. 1단계 건립 사업비 60억 원 중 자부담만 30억 원에 이르는 불사였다. 각계 후원으로 이해 12월 자부담 30억 원이 확보됐고, 추진위는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주요명상센터 답사와 국제선건축 세미나 등을 통해 본격적인 불사 준비에 들어갔다.

2017년 명상마을 설계 국제현상공모가 진행됐고, 6월 토마스 한라한 교수팀이 선정돼 2018년 7월 12일 기공식, 그해 12월 1단계 웰컴센터가 준공된다. 관건은 2단계 불사였다. 총 75억 원의 불사비용 중 22.5억 원의 자부담금은 수행납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다행히 후원을 위한 선주회가 창립되고, 명상마을 후원을 위한 고승 선서화전 등을 거쳐 2021년 2단계 불사가 착공, 2022년 4월 20일 개원을 하게 됐다. 2021년 명상마을 원만 완공을 위해 각산 스님이 총괄 책임자로 영입되는 등 갖은 노력 끝에 이뤄진 세계명상마을에 대한 특징을 키워드로 추려보았다.

봉암사 명상마을=노덕현 기자

미리보는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키워드 4'

키워드1 | 사부대중 수행처

문경 세계명상마을은 희양산 자락 600만 평 부지 위에 연면적 1만 1000㎡의 시설을 갖춘 곳이다. 틱낫한 스님의 명상센터 '플럼빌리지', 프랑스 '떼제 공동체'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해외 25곳 선센터를 탐방 후 만든 곳이 바로 문경 세계명상마을이다. 문경 세계명상마을은 현재 약 300명 가량을 수용 가능하다. 국민참선마을로 명상홀, vip룸, 컨퍼런스룸, 전시회실, 개인꾸띠, 다목적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선원수좌회는 이러한 문경 세계명상마을을 국내유일, 간화선 국민선방, 문경 세계명상마을은 종교초월, 연령초월, 불자든 비불자든 참선집중수행의 참여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국경초월 지구촌 명상메카니즘을 지향하고 있다.

키워드2 | 고승 지도

여느 명상마을, 명상처와 다른 점은 한국불교 수행의 대표성을 지닌 봉암사가 인근에 있다는 점이다. 선방 수좌스님들의 수행 열기를 함께 느끼며 지도를 받는 것은 문경 세계명상마을이 지닌 특색이다.

세계명상마을에서는 선스테이가 진행된다. 여기에는 수좌회 월암 스님(용성선원장), 선법 스님(정진선원장), 각산 스님(참불선원장), 원타 스님(해인총림 유나), 금강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지도한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수좌 스님들이 직접 질문응답을 이어간다.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 참선재단 이사장 금강 · 행불선원장 월호 ·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이 의기투합한 선불장추진위원회도 6월 17~24일 7박8일간 참선 리더 스님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세계명상마을에서 실시한다. 참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서류심사를 통과한 스님 20명에게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① 명상상담이 이뤄지는 선방. ② 1백여 명 이상이 함께 수행가능한 중선방. ③카페 분위기의 휴게시설과 공양간. ④ 개인실 꾸띠.

키워드3 | 선 · 명상 접목

문경 세계명상마을은 고유의 한국전통 참선과 남방불교를 융합해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명상교육 프로그램'을 자랑한다. 해외에서는 명상 대중화 뿐 아니라, 동양의 참선을 배우고자 하는 열기도 뜨겁다.

그 일환으로, 세계명상마을에서는 △9일 집중수행(무료) △직장인을 위한 주말 금토일 포커스반 △3일 집중수행(유료) △명상 입문반, 간화선 입문반 △평일 참선템플스테이(무료) △대한민국 청년희망 캠프 △200명 단기출가 프로그램(무료) △매월말 토요철야정진 등 다양한 참선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키워드4 | 수행인프라

세계명상마을을 처음 찾으면 내방객을 반기는 곳은 다목적 휴게시설이다. 입방 접수를 받는 사무공간과 함께 구성된 이곳에서는 마치 커피숍을 떠올리는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웰컴센터에는 수십명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준비돼 있다.

야외 조경을 볼 수 있는 2층 침대와 공용화장실 등이 준비돼있다. 전문수행자를 위한 개인 꾸띠는 1인 침대와 함께 좌선이 가능한 평상 등이 방 내부에 함께 구비되어 있다. 문경 세계명상마을은 한국 고유 '정신한류의 꽃'을 틔울 터전으로 기대된다.

"재가불자 명상 수행 총본산 될 터"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



"지난해 6월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선원장에 임명된 후 현장을 내려와 보니 실내 공사도 안 된 본관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더군요. 순간 눈앞이 컴컴해졌습니다. 불사 진척도 예상보다 더뎠고 예산도 부족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세 번이나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도 수좌 어른스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다시 힘을 얻어 지난해 10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부치고 6개월만에 무사히 완공하게 됐습니다. 1차 불사의 완공률은 현재 98%이고, 나머지 조경 작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4월 20일 개원식을 봉행하는 문경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은 손에 작업용 장갑을 긴채 그동안의 불사 과정을 이렇게 밝혔다.

각산 스님 "9일만 수행 하면 인생 바뀌어"
집중 수행 프로그램 하루만에 예약 마감
재가자, 승가 꾸띠 완성이 2차불사 핵심
8월15일부터 1주일간 청년희망캠프 진행

이어 각산 스님은 "현재까지 총 110여 억 원이 투입돼 1차 불사는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핵심 불사는 2차입니다. 재가자들과 선원 수좌스님들의 개인 수행처인 꾸띠를 완성하는 게 2차 불사입니다. 재가자 꾸띠는 30동 50실, 스님들 것은 30명 정도 머물수 있는 꾸띠를 청빈과 검소함을 원칙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재가자 꾸띠는 명상마을서 땅을 제공하고 개인 수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꾸띠를 지어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또 스님들의 꾸띠는 불자들의 시주로 짓다보니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수행 공간이라 불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명상마을서 개최하는 제4회 간화선대법회와 집중수행(참선스테이)에 대한 반응을 묻자 각산 스님은 3월 둘째 주에 홈페이지를 오픈한 지 하루 만에 예약이 모두 완료됐다며 이는 간화선과 명상에 대한 큰 관심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각산 스님은 "세계명상마을과 참불선원 사이트의 방문자가 최근 대폭 늘고 있으며, 명상마을 집중 수행 대기자만도 300명이 넘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100명 밖에 신청받을 수 없는 상태라 신청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명상마을 수행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각산 스님은 불법을 보여주자는 게 목적이라 다른 명상시설보다 40~50% 저렴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평일에는 숙식을 전무 무료 개방할 생각이며, 두 달에 한번씩 열리는 9일 집중수행 프로그램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지 주말에 이뤄지는 2박3일 집중 수행에만 소정의 참가비를 받을 예정이다.

각산 스님은 "수행자는 법과 지혜와 철학을 재가자들에게 전해 드리고, 재가수행자는 법이 있는 곳에 후원하는 시스템으로 끌고갈 생각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수행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만일 이런 운영 구조가 깨진다면 한국불교 수행 공동체들의 앞날이 어두워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각산 스님은 또한 수행 마스터들이 도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 곳에서 수행해도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래서 저희 명상 마을에서는 하루 6시간 좌선과 2시간 법문이 끝나면 반드시 선마스터들과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9일만 시간 내서 이곳 명상마을서 수행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정화를 안 한다면 우리 삶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9일까지는 안 바래도 최소한 3박4일은 와야 되는데 모두들 바쁘니까 비교적 시간이 편한 주말에 2박3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각산 스님은 "올해는 8월 15일부터 1주일 동안 300명을 초청해 명상마을 마당에서 청년희망 캠프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00명으로 규모를 늘릴 생각입니다. 그중 3% 정도는 출가하지 않을까요?"

봉암사 명상마을=김주일 기자

간화선 대종장, 7일 대중설법 나서다

禪 중흥 신호탄 '제4차 간화선대법회'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4월 20일 개원 기념으로 제4차 간화선대법회를 개최한다. 한국 간화선의 굵직 굵직한 명맥을 잇고 있는 7대 고승들을 모시는 자리다. 4월 20일부터 4월 26일 일정으로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7일간 야단법석이 펼쳐진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를 비롯하여 학림사 조실 대원 스님,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 금정총림 방장 지유 스님, 상원사 용문선원장 의정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영진 스님이 7일 동안 매일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에 이르는 길을 설파한다. 한국불교 7대 선승들의 면면을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고통에서 지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행력 높은 선지식들의 직접 지도도 이어진다. 간화선대법회 준비위원장인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과 간화선대법회 집행위원장 금강 스님(중승대 교수)을 비롯한 많은 한국 선승들의 헌신이 줄줄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1년에 단 하루 부처님오신날만 개방하는 조계종 종립선원 문경 봉암사도 이 기간을 맞아 천년의 산문을 연다. 총림 방장급 선사 스님들이 대중들을 지도하는 대법회의 뜻을 함께 기리기 위해서다.

특히 90 평생 처음 산문 밖에서 설법하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3월 30일 취임법회로 조계종 제15대 종정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도 법석에 오른다.

개원일인 4월 20일에는 대원 스님이 '생활 속의 선'으로 설법한다. 1986년 공주 학림사를 창건하고 1995년 수좌를 위한 오등선원, 2001년 시민을 위한 오등시민선원을 여는 등 평생 치열한 구도와 간화선 보급에 매진해왔다.



성파 스님 | 지유 스님 | 대원 스님 | 무여 스님 | 혜국 스님 | 의정 스님 | 영진 스님

4월 21일에는 백담사 무금선원 유나이자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영진 스님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언제인가'를 주제로 설법한다. 1972년 김제 금산사에서 출가해 봉암사, 해인사, 통도사, 백담사, 은해사 등 여러 선원에서 정진한 수행력 깊은 스님이다.

4월 22일에는 지유 스님이 '간화선, 화두 들기'를 설한다. 지유 스님은 194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봉암사는 물론 전국 여러 선방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한 수좌로 문경 봉암사 주지, 범어사 조실 등을 지냈다. 평생 범어사에 주석하면서 오로지 마음이 부처임을 알리며 선으로 수행자들을 만나왔다.

4월 23일에는 前 전국선원수좌회 대표이자 수좌선문화복지회 이사장인 의정 스님이 설법한다. 스님은 1976년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하고, 1977년부터 인천 용화사, 봉암사 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70안거를 성만했다.

2001년부터 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장으로 있으며, 2002년 조계종수행지침서인 〈간화선〉 편찬위원이자, 2006년 〈선원청규〉 편찬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선불교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4월 24일에는 오대산 상원사에서 희섭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상원사, 송광사, 해인사 칠불사, 망월사 등 전국 제방 선원에서 20여 년 정진한 무여 스님이 '선의 대중화'를 설한다. 무여 스님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축서사 조실로서 전국 각처에서 찾아온 수행자들을 지도 중이다.

4월 25일에는 22세에 반드시 성불하겠노라 오른손 손가락 3개를 연비한 혜국 스님이 '세계불교의 미래, 간화선'을 설한다. 혜국 스님은 태백산 도솔암에서 2년 7개월 장좌불와, 경봉 · 성철 · 구산 스님 회상에서 정진하고 2004년부터 석종사에서 간화선 수행을 이끌어 온 경험을 토대로 후학을 양성해오고 있다.

간화선 대법회 회향날인 4월 26일에는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이 '우리 선이 가야할 길'을 설한다. 1975년 경북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첫 안거에 든 이래 26안거를 성만한 성파 스님은 선서화, 도예 등 불교전통문화를 통한 선문화 확산에 나섰다